|  |  |
| --- | --- |
| ­분류 | 주일예배 설교 |
| 제목 | 언약의 여정 24를 누린 사람들 |
| 성경 | 롬 16:25-27 |
| 일시/장소 | 2019년 8월 4일 / 임마누엘 어스틴교회 |
| 설교 | 김태성 목사 |

♦ 성경말씀 (롬 16:25-27)

25 /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6 /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27 /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  |
| --- |
| ♣ 요약 자료 ♣ |

1. 언약의 여정 24의 믿음

1) With

2) Immanuel

3) Oneness

2. 언약의 여정 24의 누림

1) Covenant - 집중

2) Vision - 세계복음화

3) Dream – 문제, 위기가 와도

4) Image – 3 오늘

5) Practice - 작품

3. 언약의 여정 24의 결과

1) 왕 앞에

2) 성공자 앞에

3) 실력자 앞에

|  |
| --- |
| ♣ 녹취 자료 ♣ |

**♠ 서론**

▶ 오늘의 설교 제목은 언약의 여정 24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24는 또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겠다. 한국에서 세계램넌트대회를 은혜 중에 마쳤다. 큰 강의 3개의 제목이 첫째는 ‘24’, 둘째는 ‘25’, 마지막 세번째는 ‘영원’이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겠다. 시장 통에서 홀어머니가 홀로 행상을 하시면서 어렵게 사는 가족이 있었다. 늘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설정이다. 아이들은 어린데 어머니는 새벽부터 장사 준비하고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신다. 한국 전쟁 후에 많은 어머님들이 그렇게 사셨다. 어머님은 오직 자식들 제대로 공부를 시켜보려고 시장 통에서 새벽잠을 깨워 가시면서 일을 나가셨다. 시장 통에서 행상을 하게 되면 온갖 수모를 다 겪는다. 동네에 양아치들이나 깡패들이 자신의 땅도 아니면서 행상하는 사람들한테 자릿세를 내라고 한다. 그 어머님들이 하루에 얼마나 벌길래 자릿세까지 낼 수 있겠는가. 그거 안내면 양아치들이 행상에서 난리를 핀다. 잠잠하려면 시청, 구청에서 무허가로 장사한다고 다 뜯어가고 한다. 나라에서 정한 법이니까 강제 집행하는 것이다. 때마다 시청, 구청 직원 나오면 행상하던 것을 챙겨서 골목에 숨고는 한다. 그 당시 우리 어머님들이 애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사셨다. 요즘 같으면 그렇게 잘 못한다. 쉬운 돈벌이 방법을 찾아간다. 왜 어머님들이 그렇게 24를 하셨는가? 오직 자식 뒷바라지를 하려고 한 것이다. 24시간 아이들을 먹이고 제대로 공부시키려고 온갖 수모를 다 겪고 고생을 한 것이다. 피해가 올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이다. 창피한 것을 알면서 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는가? 돈을 모아서 명품 가방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어찌하던지 애들을 먹이고 공부를 시켜보려고 24시간 아이들 생각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모진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아들이 국가 고시를 패스해서 고위 공무원이 된다. 어느 날 자식이 대기업에 입사해서 삶이 안정된다. 어머니가 늘 바라던 것이었지만 어머니의 능력 밖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어머님의 바람이었지만 어머니의 실력을 초월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것을 25시라고 한다. 인간은 하루 24시간을 산다. 24시를 넘어선 25시의 일이 있다. 어머님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초월한 응답과 축복이 온 것이다. 그것을 이름하여 25시 응답이라 말하는 것이다. 기쁠 것이다. 아이들을 향하여 뿌듯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장한 어머니 상을 수상하게 된다. 구청이나 시청에 시민들을 모아 놓고 장한 어머니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때마침 TV로 생중계하여 전국민이 보는 가운데 그동안의 일들을 말하게 된다. 연설이 될 수도 있고 인터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영상을 중계 하면 필름이 남는다.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필름은 영원히 남는다. 그것을 이름하여 영원한 증거라고 말한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오직 24시 한다는 말이다. 그러던 그 사람에게 25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에 영원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런 세상의 스토리를 듣게 되면 감사하고 감동하게 된다. 사람들이 그런 거에 감동하기 때문에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든다.

▶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은 샴쌍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한 사람이 미국 최고의 신경 수술 외과 의사 벤 칼슨이다.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어릴 때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며 성장해 왔다. 괴롭힘을 당하니까 학교에 갈 마음이 없었고 공부를 안해서 맨날 꼴찌를 했다. 맨날 꼴찌 하니까 친구들이 무시하고 선생님한테 혼났다. 그 소년의 마음과 그 소년의 생활은 어떻겠는가? 다 싫어했을 것이다. 그렇게 낙심해 하는 벤에게 어머니가 한마디를 했다. ‘정말 마음을 먹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 넌 그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꽂힌 것이다. 매일 꼴찌 하는 사람이 갑자기 공부를 잘 할 수 있는가? 당장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그 어머님의 격려 한마디를 24시간 오직 붙잡은 것이다. 애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인종차별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범죄자가 되거나 자살하지 않고 그 약속을 잡은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24시간 내 마음에 품고 있은 그것을 24시 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성적이 오르고 대학에 들어가고 의사가 되었다. 어느 날 샴 쌍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하면서 세계 최고의 의사로 인정받게 된다. 의학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크리스천이었던 벤 칼슨은 고백했다.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무도 못하는 일을 그 사람이 했다. 과거에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그 수술을 그 사람이 성공했다. 그것을 25시 축복이라고 한다. 나중에 자서전을 쓰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의 불후했던 삶 속에서 성공할 수 밖에 없었던 중요한 내용들이 책과 방송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문자로 남으니까 증거가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그것이 영원한 증거가 된 것이다. 24, 25, 영원이다.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 뒤의 메시지는 저절로 깨닫게 된다.

▶ 한국에는 전해 내려오는 춘향전이라는 옛날 소설 하나가 있다. 춘향이라는 낭자가 이몽룡이라고 하는 남자를 사랑하여 교제를 했다. 어느 날, 이몽룡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나가야 했다. 남아있는 춘향이는 늘 연인 만을 생각을 할 것이다. 때마침 고을에 새로운 사또, 지방 관리가 부임하게 된다. 사또가 몹쓸 놈이라서 불의한 청을 계속 요구했다. 나는 정해진 남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계속 막무가내로 요청을 하며 공격을 해왔다. 춘향이가 사또의 청을 듣지 않았고 사또가 화를 내어 고문을 했다. 그 어마어마한 고문 속에서도 자신의 고백은 바뀌지 않았다. 춘향이는 왜 그런가? 24시 오직 이몽룡이라는 남자를 향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 24시간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조를 지켰다. 이대로 가다가는 감옥에서 죽게끔 되었다. 어느 날 일이 벌어졌다. 암행어사가 나타나서 불의한 지방 관리 사또를 심판했다. 그 암행어사가 이몽룡이었다. 춘향이는 결국 풀려나고 그들은 다시 만나게 되었다. 춘향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역사, 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그것을 25시라고 한다. 그들의 사랑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와 후대들이 보고 있다. 입으로 구전으로 전달된 것이다. 그것을 영원한 증거라고 말한다. 24, 25, 영원이다. 그것을 1강, 2강, 3강을 통해서 전달 되어졌다.

▶ 9시에 했던 제자학교에서는 25시에 대해서 했다. 오늘 주일 예배 때는 첫번째인 24를 보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24시 하자 라는 뜻이다. 성경의 그 인물들이 나오는데 램넌트 7명이었다. 그 램넌트 7명이 24시 했는데 25시 역사를 체험하고 영원한 증거를 남겨서 그 당시의 시대, 세상을 바꾸었다. 실제 일어난 일이고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실제 사실이란 말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그것이 가능했는가? 어떻게 24, 25, 영원을 누렸는가? 그것은 바로 언약의 여정을 갔기 때문에 그렇다. 언약의 여정.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여정을 갔기 때문에 24, 25가 가능했고 영원한 축복을 받았다는 뜻이다. 성경의 7명 램넌트들은 그들을 도와주는 자가 없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언약의 여정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만 붙잡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약의 여정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 작년에 CVDIP 라는 단어를 받았다. Covenant, Vision, Dream, Image, Practice이 삶을 24시간 가졌다는 말이다.

▶ 첫번째 언약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집중했다.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메시아이다.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붙잡은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했다. 어떤 일 속에 들어가도 살아남았고 결국 응답을 받고 승리했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신약 초대교회 성도들이다. 그것이 신자들이다. 그런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다.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란 인생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눈에 보이게 되면 돈 많은 재벌들 훔쳐갈 까봐 눈에 안보이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평생 승리케 하실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쟁이라고 한다. 24시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집중한다.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상처받으면 안되고 지면 안되고 손해나 무시를 받으면 안된다. 나에게 집중한다.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못하면 나쁜 사람이다. 나 중심이다. 나 중심이 그들의 언약이다. 그 다음은 비전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간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은 무엇인가?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세계복음화이다. 그것이 인생의 비전이다. 성도는 그게 비전이다. 온 열방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물이 가득하여 바다를 이루는 것 같이 세상에 충만한 그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고 환상이다. 약속을 통해서 주시는 비전이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포럼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 세상이 복음화가 될 것이다. 반면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비전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생존하고 성공하길 원한다. 세상을 정복하려고 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실력자가 되기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와 권세를 쫓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조금 성격이 강한 사람은 내가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날뛴다. 나폴레옹, 징기스칸, 알렉산더가 그랬다. 세상 사람들을 죽이고서 라도 내가 세상을 정복하려 한 것이다. 히틀러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들의 인생 비전은 세상 성공과 세상 정복이다. 그러나 세계복음화는 무엇인가? 무너져 가는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인생비전이다.

▶ 그 비전이 내 비전이 될 때 그것을 내 꿈이라고 한다. 세상 살리는 꿈이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나 전도자가 되는 것이다. 세상 살리는 복음 전도자. 대신에 세상사람들은 정복자,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이 망하건 말건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꿈이다. 전쟁하면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 그것은 뒷전이고 내가 정복해야 한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되건 말건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 어릴 때부터 마약하게 되면 회복하기 힘들다. 젊은 애들이 마약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사회 문제가 될 것을 알건 모르건 자신은 그런 일에 상관 없이 많이 팔아야 하는 그것이 그들의 꿈이다. 다음은 이미지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것을 기도라고 한다. 언약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세상사람들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응답에는 관심이 없다.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서 이루어내는 것에 관심이 있다. 결국에는 결과물만 관심을 갖는 인본주의에만 다 빠져있다. 언약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작은 삶을 실천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할 당연한 일, 바닥부터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사람들은 어떠한가? 뭔가 특별한 것을 찾는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다. 자신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에 관심이 많다. 자신의 범위를 일탈하려 하는 것이다. 고급 명품들을 들고 멋진 차를 타며 멋져 보려고 하는 것이 있다.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 동기가 문제이다. 바닥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튀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사람들과 언약사람들은 CVDIP가 다르다. 세상사람들이 걸어오는 인생여정과는 달리 우리는 언약에 집중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1. 언약의 여정 24의 믿음**

▶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겠다.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확신할 것, 믿을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언약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말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를 하신다.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무리, 결말을 지으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창조하시는 분, 창조한 것을 통치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그 분은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급을 나눈다. 그리스도의 깊이, 넓이, 높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상급을 주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 함께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 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 지난주에 살펴봤다.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히 보시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이 예수님 속에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란다.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고 통치자, 심판자이시다. 그리스도 만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영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다. 흑암세력 마귀를 굴복시킬 수 있는 영원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는 성경의 주제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도 하나 밖에 없다. 나를 위해서 부모보다도 가장 많이 신경 쓰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밖에 없다. 부모님들께서는 신혼여행 때 나를 가졌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나를 택정하셨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변함이 없다. 미래를 완전히 보장하셨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죽음을 감내하셨다. 그를 통해서 나를 살리셨다. 성령을 보내서 나를 인도하신다. 마지막 날 영광에 이루기까지 우리를 시분초도 놓치지 않고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누려야 한다.

**2. 언약의 여정 24의 누림**

▶ 두번째이다. 이 CVDIP가 언약의 여정이다.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나중에 결국에는 세상 바꾸는 증거를 주시는구나. 다섯 가지를 알 뿐만 아니라 누려야 한다. Covenant, 24시 그리스도를 24시간 누리는 것이다. 무엇을 누려야 하는가? 인생 결론이다. 인생 해답이다. 인생 기준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이다. 인생 결론, 그리스도로 다 끝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찾아야 할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 밖에 없다. 인생 해답, 해결책은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 인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기준, 살다 보면 길흉화복이라는 말이 있다.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진다. 선악, 무엇이 좋고 나쁜지 기준이 있다. 윤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램넌트 여러분은 앞으로 결혼을 하실텐데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저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께 사로 잡혔는가 안잡혔는가. 그것을 보고 찾아야 한다. 그것을 누려야 한다. Vision, 비전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언약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비전이다.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이다. 그 속에 축복이 담겨있다. 그 속에 우리가 할 미션이 있는 것이다.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야 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내가 왜 직장생활을 하는가? 내가 왜 학위를 따야 하는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렇다. 집을 미션홈으로 만들라. 집을 지교회로 만들라. 하나님의 소원을 비전으로 잡는 것이다. Dream 24시간 꿈꾸는 것이 무엇인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삶이다. 증인이다. 증거를 가진 증인. 내용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 끝까지 하는 제자. 증인, 전도자, 제자라는 것이다. 했다 말았다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한다. Image, 이미지이다. 상상하며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62가지의 응답이 있다.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말씀 잡고 기도로 확정하고 전도현장에서 성취시키는 것이다. 그것을 매일 하는 것이다. 그것이 Practice이다. 이것을 모으면 인생작품이 된다. 매일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매일 훈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기록하고 읽고 메시지를 묵상하는 것이다. 매일 실천하고 매일 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매일 도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웃에게 이 자료를 전달해야 하겠다. 내가 누구와 식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라는 도전이다. 바닥부터 하는 것이다. 당연한 것을 하는 것이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다. 어떻게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 차분하게, 성실하게, 견고하게 매일 하는 것이다. 이 5가지를 누리는 것이다. 이런 CVDIP언약의 여정을 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3. 언약의 여정 24의 결과**

▶ 마지막이다. 언약 여정의 결과. 어느 날이라는 시간표가 온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올 줄로 믿는다. 왕 앞에 서게 된다. 세상의 성공자 앞에 서게 된다. 세상의 실력자 앞에 서는 날이 온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다. 감히 어떻게 감옥에 있는 죄수가 왕을 알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저 앉아있던 80세 노인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을 만날 수 있었는가? 사무엘은 일개 선지자였는데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왕까지 세웠다. 언약의 여정을 걸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다. 핍박 받던 전도자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게 되었다. 아무나 만날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가게 하셨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는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주 여호와. 이 시간표가 오게 된다.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란다. 내가 정말로 언약의 여정을 간다 하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 육신의 질병, 병마 떠나갈 줄 믿는다. 옥죄었던 가난, 저주가 무너질 줄 믿는다. 늘 불화하던 가정에 평화가 임할 줄 믿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살리는 최고의 도전을 하시기 바라고 이를 위해서 영혼에 말씀을 각인시키기 바란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기 바란다. 주님과 대화하시고 기도에 뿌리내리기 바란다. 여러분의 몸과 삶을 임마누엘로 연결시키기 바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무한 광대하신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는다. 이것이 언약이 여정 24시 이다.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란다.

**♠ 기도**

▶ 전능하신 아버지,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신 언약의 여정 24시 하겠습니다. 연약한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생각과 마음을 부활시켜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 허락해 주시옵고 세상의 물질을 동원하여 풍요함의 축복을 얻게 하옵소서. 세상을 리드하고 정복하며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갑니다. 언약의 여정 24시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